

한국 대학생의 편의식품에 대한 인지도, 이용 정도 분석 및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수재 · 윤혜준 · 김정현 · 이양자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998년 7월 29일 접수)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Consumption Pattern of Convenience Foods by Korean College Students

Soo-Jae Moon, Hye-June Yoon, Jung-Hyun Kim, and Yang-Ja Lee

Dept. Food and Nutri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July 29, 199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recognition as well as the consumption pattern of convenience food products, and related factors among 700 mixed Korean college students using written questionnaire. Students of Seoul region showed the significantly lowest rate of recognition at 36.7%. Results also showed that lifestyl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convenience foods. The consumption patterns of convenience foods goes as follows: used frequently-18.2%, once in awhile-73.9%, doesn't use-7.9%. The higher the recognition rate, the higher the consumption rate for convenience foods. When compared in terms of residence, students living at home used more refrigerated foods compared to students living outside of the home. Among the total students living outside of the home, students living on their own scored highest of convenience food consumption.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living outside the home, respondents living alone and in dormitories scored the highest. Female students living in dormitories were mainly using refrigerated and canned foods, while those living alone consumed more kimbap and "sa-bal-myun" in convenience stores. Korean college students mainly consumed frozen food, retort food, and kimbap in convenience stores. The college student that believes that "You eat to satisfy hunger" significantly used more convenience food while those that marked "maintain health" consumed the lowest showing a great difference between groups. Results showed that the lower the food habit score, the higher the usage score of convenience foods. The food habit score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usage of frozen foods, instant food, and convenience store food. When compared individually, packaged "ramen" and "sa-bal-myun" scored the highest points of usage. Frozen fried rice and pre-packaged rice scored the lowest points indicating Korean college students do not consider rice a convenience food. Convenience food consumed in convenience stores ranked the highest among places of consumption, compared to places like home or outdoors; showing that convenience foods were used by people with limited time constraints.

I. 서론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야간활동 인구 증가, 대중소비시대¹⁾, 소비패턴의 다양화, 편리성 추구 경향,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의 사회 변화적 요인들은 생활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식품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편의식이 등장하게 되었다²⁾. 식사 구성에 대한 의식 변화와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는 전통적인 식단 구성에서까지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식당의 체인화에 따른 음식의 생산, 유통, 판매의 대형화와 함께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가능케 하였다⁵⁾. 또한 식생활의 서구화³⁾에 따라 식사를 밥이 아닌 밀가루 음식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정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의 증가로 인한 편의식의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⁴⁾.

편의식품이란 인스턴트 식품, quick serve meal, 조리 냉동음식 및 ready-to-eat food 등으로 현재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편의음식 개발은 1980년대 초 서양 음식과 중국음식의 인스턴트화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음식을 인스턴트화 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여 전통적인 부식인 국과 찌개 류도 동결건조방식으로 쉽게 복원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고 용도도 단순한 간식용에서 벗어나 레저용, 부식용, 주식용, 손님 접대용 음식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밥-국-부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식사 구성의 특성상 부식 류의 편의식 개발이 요구되는데 부식 류만을 소량 생산하여 판매하는 반찬전문점은 전국에 350개 업소가 운영중이고 35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의식의 요구 및 수요는 현재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⁵⁾. 근래에 들어서 급증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인해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의 요구에 맞추어 식생활의 다양화와 간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기능적인 측면과 미학이 가미되어 질적인 우수함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생활중 식품의 구매 및 이용에서도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과학적·기능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 냉동·냉장·레토르트·통조림 식품을 포함한 편의식품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편의식품들은 냉동이나 레토르트, 통조림 형태로 대량 생산되는 편의식의 경우 그 동안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술상의 문제로 맛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대부분 그 영양적인 균형성에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은 성장기로부터 성인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인 청년기의 마지막 시기로서 독특한 생활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식습관은 성장기 시절의 식습관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성인기에 정착될 식습관을 예견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⁸⁾.

지금까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편의식의 개발을 위한 인식 조사⁵⁾, 조리 냉동 및 냉장식품에 대한 도시주부의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²⁴⁾,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인식 연구²⁶⁾,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 연구²⁷⁾ 등이 이루어졌으나, 대학생의 편의식품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정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편의식(크게 냉동 식품, 냉장 식품, 즉석식품, 통조림 식품, 조리된 반찬, 편의점 식품 6종류)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현황을 알아보고, 편의식의 이용과 식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면서 편의식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19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 및 경기도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대전, 전주, 청주, 울산)에 있는 전국 7개 대학을 선정한 후 남녀 대학생 700명을 임의로 추출하였다. 이 중 응답자는 686명이었으며, 남학생은 242명, 여학생은 428명으로 남녀의 비는 각각 36.1%와 63.9%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대학생이 29.6%, 경기지역이 37.0%, 기타 지역은 33.4%이었다(표 1).

〈표 1〉 성 및 지역에 따른 분포 a N(%)

지역	남학생 (n=242)	여학생 (n=428)	전체 (n=686)
서울	93(47.2) ^a	104(52.8)	203(29.6)
경기	88(34.7)	166(65.4)	254(37.0)
기타	61(27.9)	158(72.2)	229(33.4)
총계	242(35.3)	428(64.7)	686(100.0)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설문 도구 개발 및 조사 방법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연구 모형에 적합하도록 설문지를 개발한 후 대학생 5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강의실에서 편의식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이면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686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식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과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환경적 특성 및 생활 유형 조사

대학생의 사회·환경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경제수준, 가족 구성원의 형태(동거 가족수), 거주 상태, 생활 유형등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생활 유형 형태를 알아보하고자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행동³⁴⁾에 의한 서구성(전통성), 감각성(규범성), 급진성(안정성), 자아 추구도(자유 분방도), 현실 순응도(현실 갈등도), 현실 향유도(현실 불만도)의 6개 항목에 대해서 특정 성향이 높다, 보통이다, 낮다의 3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2)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 조사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자 '편의식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는 3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 편의식 이용 현황 조사

편의식의 이용 정도와 주로 이용하는 편의식품을 알아보고 성, 지역, 거주 유형, 생활 유형별로 편의식에 대한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4) 식생활 행동 평가

대학생들의 편의식에 대한 식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Maslow의 욕구이론에 근거하여 식가치관(공복감 해소, 간단히 끝내는 것, 영양 취하기, 즐기는 것)을 알아보고 식행동은 Atachi등에 의해 개발된 식생활 행동 점검 문항을 그 표현 내용상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알맞도록 일부 개정한 이³²⁾에 의한 연구에서 사용한 총 20문항의 식생활 행동 평가문항을 이용하였다. 평가 문항은 1)전반적인 식생활 행동 평가문항(5문항)과 2)섭취 음식의 균형성 평가 문항(8문항), 3)생활과의 조화를 평가하는 문항(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중 식생활 행동이 우수할 때는 5점, 중간 정도일 때는 3점, 불량할 때는 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에 1)-3)의 모든 항목에서 10점 이상의 득점이

있을 때는 개인의 식생활 행동의 균형을 인정하여 총점에 10점을 가산하고 1)-3)의 모든 항목에서 8점 이상의 득점이 있을 때 개인의 식생활 행동의 양호성을 인정하여 총점에 8점을 가산하여 개인별 식생활 행동 점수로 채택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의 처리는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환경적 특성,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 이용 현황, 식가치관, 그리고 식행동의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대학생의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 빈도간 차의 유의성은 χ^2 -test 통계기법으로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사회·환경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사회 환경적 특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가족의 한달 총수입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남학생은 261.7만원, 여학생은 289.0만원으로 나타났다. 거주 환경을 크게 자택에 거주하는 집단과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하는 집단으로 나누고 자택 이외에 거주하는 집단을 다시 자취하는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집단, 하숙하는 집단, 그리고 기타 친척집에 머무는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본 결과, 자택 거주자가 70.6%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살고 있었다. 자택 이외 거주자는 29.4%였으며, 이들을 거주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본 결과, 자취가 48.4%, 기숙사는 22.9%, 하숙은 16.7%, 친척집이 12.0%를 구성하고 있었다.

식생활은 개인의 생활양식(Life-style)의 일부분으로, 이는 식행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¹²⁾는 선행 연구 보고에 근거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라이프 스타일은 사회계층, 문화, 준거집단, 가족 등의 환경적 변수와 가치, 개성, 자아개념의 심리적 변수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태도 및 인생관이라 하고 그 외 가치의식, 흥미, 관심, 현재적 행동과의 통합된 system이라고도 볼 수 있다¹¹⁾. 따라서, 본 조사 대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서구성(전통성), 감각성(규범성), 급진성(안정성), 자아 추구도(자유 분방도), 현실 순응도(현실 갈등도), 현실 향유도(현실 불만도)의 6개 항목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정 성향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높았다. 생활 유형 항목 중 급진성과 자아

〈표 2〉 사회 환경적 특성

변 인		남	여	전체
가족의 한달 총수입(만원)		261.7±147.4 ^a	289.0±341.2	276.8±273.6
거주 환경				
거주지		n=233	n=413	n=652
주택 거주		144(61.8)	314(76.0)	460(70.6) ^b
기타		89(38.2)	99(24.0)	192(29.4)
(거주 유형)		n=89	n=99	n=192
자취		42(47.2)	49(49.5)	93(48.4)
기숙사		25(28.1)	19(19.2)	44(22.9)
하숙		18(20.2)	13(13.1)	32(16.7)
친척집		4(4.5)	18(18.2)	23(12.0)
생활 유형		(n=664)	(n=237)	(n=415)
서구성 (전통성)	높다	58(24.5)	99(23.9)	161(24.2)
	보통	151(63.7)	280(67.5)	439(66.1)
	낮다	28(11.8)	64(9.6)	36(8.7)
감각성 (규범성)	높다	70(29.5)	96(23.5)	168(25.5)
	보통	128(54.0)	247(60.4)	384(58.4)
	낮다	39(16.5)	66(16.1)	106(16.1)
급진성 (안정성)*	높다	36(15.3)	40(9.8)	77(11.7)
	보통	133(56.4)	220(53.9)	360(54.9)
	낮다	67(28.4)	148(36.3)	219(33.4)
자이추구도*** (자유분방성)	높다	89(38.2)	105(25.8)	196(30.2)
	보통	103(44.2)	252(61.9)	362(55.7)
	낮다	41(17.6)	50(12.3)	92(14.2)
현실 순응도 (현실갈등도)	높다	77(32.4)	225(34.4)	145(35.7)
	보통	125(52.5)	213(52.5)	344(52.6)
	낮다	36(15.1)	48(11.8)	85(13.0)
현실 향유도 (현실불만도)	높다	67(28.4)	87(21.4)	154(23.6)
	보통	136(57.6)	263(64.6)	407(62.4)
	낮다	33(14.0)	57(14.0)	91(14.0)

a (평균±표준편차) bN(%) * p < .05 *** p < .001

추구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2.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편의식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편의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35.8%(236명)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 지역(44.6%), 기타 지역(34.7%), 서울 지역(24.6%) 순으로 나타나 편의식에 대한 인지 정도가 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생활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현실 향유도가 높은 집단(41.7%)이 높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가 유의적(P<0.05)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표 4).

3. 편의식의 이용 현황

1) 전반적인 이용 현황

편의식의 전반적인 이용 현황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48%가 편의식품을 가끔 이용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용한 경험은 있으나 앞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가 26%로, “알고는 있지만 이용해 본적이 없다”가 22%로 나타났다. 편의식품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불과하여 편의식품에 대한 이용율은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편의식품별 이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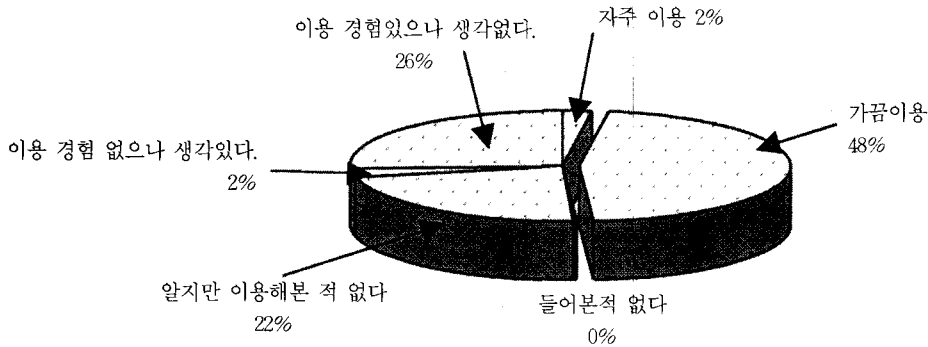
각각의 편의 식품별로 이용 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편의식품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하여 (0점: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점: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2점:보통이다, 3점: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4점: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점수화하여 분석하

〈표 3〉 성 및 지역에 따른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

a N(%)

변인	안다	들어본적 있다	모른다	총계	비고
지역***					
서울	49(24.6) ^a	77(38.7)	73(36.7)	199(100.0)	$\chi^2 = 32.13$
경기	111(44.6)	88(35.3)	50(20.1)	249(100.0)	
기타	77(34.7)	102(46.0)	43(19.4)	222(100.0)	
계	237(100.0)	267(100.0)	166(100.0)	670(100.0)	
성별					
남	93(38.8)	90(37.5)	57(23.8)	240(100.0)	$\chi^2 = 1.42$
여	143(34.1)	169(40.3)	107(25.5)	419(100.0)	
계	236(35.8)	259(39.3)	164(24.9)	659(100.0)	

* P<.05 *** P < .001



〈그림 1〉 편의식의 이용 현황

〈표 4〉 생활 유형에 따른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

a N(%)

생활 유형	안다	들어본적 있다	모른다	총계	비고
서구성	64(40.3)	54(34.0)	41(25.8)	159(100.0)	$\chi^2 = 4.15$
감각성	67(40.9)	52(31.7)	45(27.4)	164(100.0)	$\chi^2 = 8.15$
급진성	28(36.8)	30(39.5)	18(23.7)	76(100.0)	$\chi^2 = 2.63$
자이추구도	70(35.6)	87(39.2)	56(25.2)	188(100.0)	$\chi^2 = 4.87$
현실순응도	79(35.6)	87(39.2)	56(25.2)	222(100.0)	$\chi^2 = 2.20$
현실항유도*	63(41.7)	54(35.8)	34(22.5)	151(100.0)	$\chi^2 = 12.24$

* P<.05 *** P < .001

〈표 5〉 편의 식품별 이용 정도 점수

편의 식품	대분류 이용정도	소분류	이용 정도
냉동식품	64.8 ± 24.8	냉동피자	1.5±0.9 ^a
		냉동튀김	1.5±1.1
		냉동만두	2.3±1.0
		냉동면	2.2±1.5
		냉동볶음밥	0.6±1.0
즉석식품	65.0 ± 21.0	레토르트 식품	2.0±0.9
		죽류	0.9±1.1
		포장밥	0.4±0.9
		햄버거 패티	1.0±1.2
		봉지 라면	3.1±1.2
		가정용 사발면	2.5±1.2
		씨리얼	1.8±1.3
즉석국	1.2±1.1		
냉장식품	75.0 ± 30.0	포장김치류	1.7±1.1
		햄 및 소시지	2.5±1.1
		어묵류	2.1±1.1
		젓갈류	1.3±1.2
통조림	51.9 ± 37.2	생선 통조림	1.6±1.3
		고기 통조림	1.2±1.2
		야채 통조림	1.1±1.2
조리 반찬	52.0 ± 44.0		1.3±1.1
편의점 식품	79.8 ± 35.9	김밥	1.9±1.1
		샌드위치	1.7±1.1
		사발면	2.4±1.1

a 편의식품(소분류)의 점수 범위 (0-4점)에서의 평균 ± 표준편차

b 편의식품별(대분류) 점수 범위(0-160점)에서의 평균 ± 표준편차

였다. 그 결과, 냉동식품 중 냉동 만두(2.3점)와 냉동면류(2.2점)의 이용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냉동 볶음밥(0.6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석식품으로는 봉지라면(3.1점)과 사발면(2.5점)이 높은 점수를 보였고 포장밥(0.4점)은 가장 낮은 이용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만두류와 면류(라면류)에 대해서는 편의식품으로서 수용하는 정도가 컸으나 밥류인 경우 밥을 직접 지어서 먹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냉장식품 중 햄(2.5점)과 어묵(2.1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조림 식품은 이용 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편의식품별로 이용 점수를 살펴본 결과, 편의점 식품(79.8점), 냉장식품(75점), 즉석식품(65점), 냉동식품(64.8점), 조리된 반찬(52점), 통조림 식품(51.9점)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편의식이라도 편의점에서의 이용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요구가 편의점의

대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표 5).

지역 및 성별간에 편의식품의 이용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냉장식품과 통조림 식품에서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즉, 냉장식품의 경우 여학생(7.8점)이 남학생(7.1점)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이용도가 컸다. 반면, 통조림 식품의 경우 남학생(4.0점)이 여학생(3.8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거주지에 따른 편의식품별 이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택에 거주하는 집단의 냉장 식품 이용 점수(자택:7.7점, 기타지역:7.1점)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표 6).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주 유형에 따른 편의식품 이용 비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은 레토르트 식품, 죽류, 가정용 사발면, 즉석국, 햄, 어묵, 젓갈, 통조림 식품, 조리된 반찬, 그리고 편의점 샌드위치로 나타났다. 자취 생활을 하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편의 식품에 있어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편의식품을

〈표 6〉 성·지역, 거주지에 따른 편의식품의 이용 점수

이용점수	변인	냉동 식품	즉석 식품	냉장 식품	통조림 식품	조리된 반찬	편의점 식품	전반적인 편의식품
전체								
남		7.8±3.2 ^a	12.9±4.3	7.1±3.2*	4.0±3.0	1.3±1.1	6.1±2.8	39.1±13.0
여		8.3±3.1	13.0±4.2	7.8±2.8	3.8±2.8	1.2±1.1	6.0±2.6	40.4±10.7
서울지역								
남		7.4±3.4	12.8±4.6	6.6±3.6*	3.1±2.9	1.2±1.1	5.9±3.0	37.0±13.4
여		7.9±3.1	13.1±4.8	7.9±3.0	3.9±2.6	1.2±1.1	5.5±2.7	40.1±10.5
경기지역								
남		7.9±3.2	13.0±4.4	7.0±3.0*	4.1±3.2	1.3±1.2	6.0±2.5	38.9±13.0
여		8.4±3.1	13.1±4.3	8.3±2.7	3.9±2.7	1.3±1.1	6.2±2.6	41.1±10.7
기타지역								
남		8.4±3.0	12.9±4.0	7.7±3.0	5.0±2.2*	1.5±1.1	6.6±2.9	41.7±12.1
여		8.5±3.1	12.8±3.9	7.2±2.7	3.7±2.9	1.1±1.1	6.1±2.5	39.8±10.8
거주지								
자택		8.3±3.2	13.1±4.2	7.7±3.0*	3.9±2.8	1.3±1.1	6.0±2.7	40.1±11.4
자택 이외		7.8±3.0	12.8±4.5	7.1±2.9	3.7±2.8	1.2±1.1	6.0±2.7	39.6±11.7

^a M±SD * p < .05

〈표 7〉 성 및 거주 유형별 편의식품 이용정도

편의식품	남학생					여학생					N(%)
	자취	기숙사	하숙	친척집	총계	자취	기숙사	하숙	친척집	총계	
냉동피자	17(46.0)	8(21.6)	8(21.6)	4(10.8)	37(100.0)	46(45.1)	26(25.5)	17(16.7)	13(12.8)	102(100.0)	
냉동튀김	19(43.2)	10(22.7)	9(20.5)	6(13.6)	44(100.0)	42(48.3)	23(26.4)	14(16.1)	8(9.2)	87(100.0)	
냉동만두	28(52.8)	7(13.2)	9(17.0)	9(17.0)	53(100.0)	45(42.5)	33(31.1)	17(16.0)	11(10.4)	106(100.0)	
냉동면	41(54.7)	14(18.7)	11(14.7)	9(12.0)	75(100.0)	32(43.2)	21(28.4)	12(16.2)	9(12.2)	74(100.0)	
냉동볶음밥	32(50.8)	10(15.9)	12(19.1)	9(14.3)	63(100.0)	18(38.3)	17(36.2)	7(14.9)	5(10.6)	47(100.0)	
레토르트*	62(55.4)	23(20.5)	14(12.5)	13(11.6)	112(100.0)	11(26.8)	14(34.2)	9(22.0)	7(17.1)	41(100.0)	
죽류*	35(57.4)	9(14.8)	10(16.4)	7(11.5)	61(100.0)	21(36.2)	21(36.1)	9(15.5)	7(12.1)	58(100.0)	
포장밥	29(47.5)	12(19.7)	9(14.8)	11(18.0)	61(100.0)	15(37.5)	14(35.0)	9(22.5)	2(5.0)	40(100.0)	
3분 햄버그	32(54.2)	10(17.0)	10(17.0)	7(11.9)	59(100.0)	24(38.7)	21(33.9)	8(12.9)	9(14.5)	62(100.0)	
봉지라면	48(54.5)	16(18.2)	11(12.5)	13(14.8)	88(100.0)	26(39.4)	23(34.9)	11(16.7)	6(9.1)	66(100.0)	
가정용 사발면*	41(51.9)	12(15.2)	11(13.9)	15(19.0)	79(100.0)	33(42.9)	27(35.1)	11(14.3)	6(7.8)	77(100.0)	
씨리얼	49(53.3)	16(17.4)	15(16.3)	12(13.0)	92(100.0)	19(39.6)	16(33.3)	8(16.7)	5(10.4)	48(100.0)	
즉석국**	56(59.0)	16(16.8)	11(11.6)	12(12.6)	95(100.0)	12(30.8)	16(41.0)	8(20.5)	3(7.7)	39(100.0)	
포장 김치	48(54.6)	20(22.7)	11(12.5)	9(10.2)	88(100.0)	18(36.0)	17(34.0)	9(18.0)	6(12.0)	50(100.0)	
햄***	63(61.2)	16(15.5)	8(7.8)	16(15.5)	103(100.0)	14(25.5)	22(40.0)	16(29.1)	3(5.5)	55(100.0)	
어묵*	48(53.9)	17(19.1)	11(12.4)	13(14.6)	89(100.0)	21(35.6)	21(35.6)	11(18.6)	6(10.2)	59(100.0)	
젓갈*	45(52.3)	18(20.9)	13(15.1)	10(11.6)	86(100.0)	9(25.7)	14(40.0)	9(25.7)	3(8.6)	35(100.0)	
생선 통조림**	59(55.7)	21(19.8)	13(12.3)	13(12.3)	106(100.0)	7(24.1)	13(44.8)	7(24.1)	2(6.9)	29(100.0)	
고기 통조림*	47(50.5)	18(19.4)	14(15.1)	14(15.1)	93(100.0)	9(29.0)	13(41.9)	6(19.4)	3(9.7)	31(100.0)	
야채 통조림*	49(54.4)	17(18.9)	13(14.4)	11(12.2)	90(100.0)	7(24.1)	13(44.8)	6(20.7)	3(10.3)	29(100.0)	
조리 반찬***	48(56.5)	14(16.5)	12(14.1)	11(12.9)	85(100.0)	5(18.5)	13(48.2)	6(22.2)	3(11.1)	27(100.0)	
편의점 김밥	28(50.0)	9(16.1)	10(17.9)	9(16.1)	56(100.0)	39(47.0)	24(28.9)	12(14.5)	8(9.6)	83(100.0)	
편의점 햄버거*	30(53.4)	7(12.5)	9(16.1)	10(17.9)	56(100.0)	32(40.5)	28(35.4)	12(15.2)	7(8.9)	79(100.0)	
편의점 사발면	30(50.9)	11(18.6)	8(13.6)	10(17.0)	59(100.0)	40(43.0)	28(30.1)	16(17.2)	9(9.7)	93(100.0)	

* p < 0.05 ***p < 0.01 **** p < 0.001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취생 뿐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 역시 편의식의 이용도가 높았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학생들은 주로 냉장 식품 및 통조림 식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 편의점 김밥과 사발면의 이용도에 있어서는 자취생의 이용도가 가장 높아 자택 이외에 거주하는 여대생 중 자취생의 편의점에서의 매식 정도가 높음을 알려주었다. 이는 여대생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2) 성 및 지역에 따른 이용 정도

성 및 지역에 따른 이용 정도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편의식의 이용 경험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편의식을 자주 이용하는 비율이 남학생이 19.3%, 여학생이 17.7%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이용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기타 지역 여대생이 편의식을 자주 이용하는 비율은 12.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생활 유형에 따른 이용 정도

본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생활 유형과 편의식 이용 정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6개(서구성, 감각성, 급진성, 자아추구도, 현실 순응도, 현실 향유도)의 개별적인 생활 유형에 대하여 특정한 성향이 높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편의식 이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생활 유형에 따른 편의식품의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서구성, 감각성, 급진성이 높은 집단이 자아추구도, 현실 순응도, 현실 향유도가 높은 집단에 비하여 편의식을 자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4.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가 이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는 이용 경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 < 0.001$). 즉, 편의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 가끔 이용하는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식을 알고 있으면서 자주 이용하는 비율은 42.0%, 편의식을 모르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로 나타났다(표 10). 따라서, 편의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집단의 이용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인지도가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8〉 성 및 지역에 따른 이용 정도

^a N(%)

변인	자주 이용	가끔 이용	이용하지 않음	총계	비교
전체	남 46(19.3) ^a	174(73.1)	18(7.6)	238(100.0)	$\chi^2 = 0.27$
	여 72(17.7)	303(74.6)	31(7.6)	406(100.0)	
서울	남 19(20.9)	66(71.7)	7(7.6)	92(100.0)	$\chi^2 = 1.08$
	여 21(21.4)	73(74.5)	4(4.1)	98(100.0)	
경기	남 14(16.5)	66(77.7)	5(5.9)	85(100.0)	$\chi^2 = 0.58$
	여 33(20.5)	119(73.9)	9(5.6)	161(100.0)	
기타	남 13(21.3)	42(68.9)	6(9.8)	61(100.0)	$\chi^2 = 2.85$
	여 18(12.2)	111(75.5)	18(12.2)	147(100.0)	

NS : not significant.

〈표 9〉 생활 유형에 따른 이용 정도

^a N(%)

생활 유형	자주 이용	가끔 이용	이용하지 않는다	총계	비교
서구성	40(25.6) ^a	108(69.2)	8(5.1)	156(100.0)	$\chi^2 = 9.19$
감각성	37(23.3)	113(111.1)	9(5.7)	159(100.0)	$\chi^2 = 8.98$
급진성	18(24.0)	52(69.3)	5(6.7)	75(100.0)	$\chi^2 = 4.93$
자아 추구도	29(15.6)	142(76.3)	15(8.1)	186(100.0)	$\chi^2 = 6.42$
현실 순응도	35(16.1)	164(75.2)	19(8.7)	218(100.0)	$\chi^2 = 4.06$
현실 향유도	28(18.7)	115(76.7)	7(4.7)	150(100.0)	$\chi^2 = 6.23$

5. 편의식에 대한 이용 현황과 식행동과의 관계

1) 식가치관 및 식행동 평가

(1) 식가치관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식품 및 식생활에 대한 가치 부여 변화 이론에 따라 생리적 욕구를 “공복을 채운다”로, 안전의 욕구는 “식사를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구분하

였다. 또한, 건강 향상의 욕구는 “영양을 채우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며, 즐거움의 욕구는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나타내어 분류하였다¹⁹⁾. 표 11은 조사대상자의 식가치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따른 식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대학생들의 식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식가치관은 ‘즐거이는 것(52.7%)’, ‘공복감 해소(28.0%)’, ‘간단히 끝내는 것(10.6%)’, ‘영양 취하기(8.7%)’의 순으로 그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지역에 따라서는 기타 지역

〈표 10〉 인지도에 따른 이용 경험

a N(%)

인지도***	자주 이용	가끔 이용	이용하지 않음	총계	비고
안다	50(42.0) ^a	180(37.3)	6(11.5)	236(36.1)	$\chi^2 = 47.69$
들어본 적 있다	29(24.4)	217(44.9)	20(38.5)	266(40.7)	
모른다	40(33.6)	86(17.8)	26(50.0)	152(23.2)	
전체	119(100.0)	483(100.0)	52(100.0)	654(100.0)	

***p<0.001

〈표 11〉 지역, 성, 거주 환경, 생활 유형에 따른 식가치관

a N(%)

변인	공복감 해소	간단히 끝내기	영양 취하기	즐거이는 것	전체	비고
성별 **						
전체	180(28.0) ^a	68(10.6)	56(8.7)	339(52.7)	663(100.0)	$\chi^2 = 15.20$
남**	71(30.1)	31(13.2)	30(12.8)	103(43.8)	235(100.0)	
여	106(26.7)	37(9.3)	25(6.3)	229(57.7)	396(100.0)	
지역						
서울	38(19.7)	21(10.9)	27(14.0)	107(55.4)	193(100.0)	$\chi^2 = 18.13$
경기	69(29.2)	23(9.8)	15(6.4)	129(54.7)	236(100.0)	
기타	73(34.1)	24(11.2)	14(6.5)	103(48.1)	214(100.0)	
거주지***						
자택 거주	110(25.2)	41(9.4)	27(6.2)	258(59.2)	436(100.0)	$\chi^2 = 23.75$
자택 이외 거주	59(32.8)	20(11.1)	28(15.6)	73(40.6)	180(100.0)	
거주유형*						
자취	33(38.8)	14(16.5)	7(8.2)	31(36.5)	85(100.0)	$\chi^2 = 18.64$
기숙사	8(19.1)	3(7.1)	10(23.8)	21(50.0)	42(100.0)	
하숙	10(32.3)	1(3.2)	9(29.0)	11(35.5)	31(100.0)	
친척집	8(36.4)	2(9.1)	2(9.1)	10(45.5)	22(100.0)	
생활유형						
서구성**	29 (18.8)	13 (8.4)	15 (9.7)	97 (63.0)	154(100.0)	$\chi^2 = 27.09$
감각성	32 (20.3)	16 (10.1)	15 (9.5)	95 (60.1)	158(100.0)	$\chi^2 = 11.01$
급진성	16 (21.6)	7 (9.5)	6 (8.1)	45 (60.8)	74(100.0)	$\chi^2 = 3.69$
자아 추구도*	48 (26.0)	16 (8.7)	26 (14.1)	75 (51.4)	185(100.0)	$\chi^2 = 15.14$
현실 순응도	57 (27.0)	25 (11.9)	17 (8.1)	112 (53.1)	211(100.0)	$\chi^2 = 2.56$
현실 향유도	36 (24.8)	17 (11.7)	12 (8.3)	80 (55.2)	155(100.0)	$\chi^2 = 2.43$

*P < 0.05 **P < 0.01

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식가치관을 '공복감 해소(34.1%)', '간단한 것(11.2%)'에 두는 비율이, 서울 지역에서는 '영양 취하기(14.0%)'와 '즐거움(55.4%)'에 두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식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에 비해 '즐거움(57.7%)'에 대한 비율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공복감 해소(30.0%)'와 '영양 취하기(12.8%)'에 대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거주 환경 중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의 식가치관은 '즐거움(59.2%)', '공복감 해소(25.2%)', '간단한 것(9.4%)', '영양 취하기(6.2%)' 순으로 높았으며, 자택 이외의 곳에 거주하는 학생은 '즐거움(40.6%)', '공복감 해소(32.8%)', '영양 취하기(15.6%)', '간단한 것(11.1%)' 순으로 높아 자택 거주 학생일수록 식가치관을 '즐거움(59.2%)'에, 자택 이외 거주 학생일수록 '공복감 해소(32.8%)' 및 '영양 취하기(15.6%)'에 둔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기숙사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식가치관을 '즐거움(50.0%)' 및 '영양 취하기(23.8%)'에 두는 비율이 높았고 '공복감 해소(19.1%)' 및 '간단한 것(7.1%)'에 대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생활 유형에 따른 식가치관은 서구성이 높은 집단이 식가치관을 '즐거움'에 두는 비율이 63.0%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자아추구도가 높은 집단은 '공복감 해소(18.8%)'에 두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자아추구도가 높은 경우 다른 성향이 높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하여 '영양 취하기(14.1%)'에 대한 비율이 높은 반면 현실 순응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공복 채우기(27.0%)'의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식행동 평가

대학생들의 식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행동을 식사태도, 반찬의 조화, 생활과의 조화 측면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또한 이들 세 부분을 통합한 전반적인 식태도를 살펴보았다(표 12). 전반적인 식태도 점수는 남학생(61.1점)이 여학생(56.2점)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 역시 남학생의 전반적인 식태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남:67.7점, 여:54.5점) 성별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사 태도 점수는 기타 지역 남학생이 12.4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지역 남학생과 기타 지역 여대생이 9.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지역에서는 여학생이(p<0.05), 기타 지역에서는 남학생의(p<0.001) 식태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찬과의 조화 점수는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남:32.7점, 여:30.1점, p<0.01), 기타 지역 남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35.1점)를 보이면서 여대생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생활과의 조화 점수 역시 전반적으로 남학생(11.7점)이 여학생(10.3점)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0.001), 경기 지역과 기타 지역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p<0.001)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 경기 지역 대학생들의 생활과의 조화 점수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p<0.05).

본 연구에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식행동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식태도가 우수한 학생이 12.1%, 양호한

<표 12> 성 및 지역에 따른 식행동의 부문별 평가

^a (M±SD)

변인	식사태도	반찬과의 조화	생활과의 조화	전반적인 식태도
전체	10.6±3.9	31.1±10.5	10.8±3.9	58.0±18.3
남	10.7±4.1 ^a	32.7±10.6**	11.7±4.1***	61.1±18.6***
여	10.5±3.8	30.1±10.3	10.3±3.7	56.2±17.9
서울	10.6±4.2	30.0±11.1	10.4±4.3	55.9±19.6
남	10.3±4.4	31.2±11.6	10.8±4.4	57.0±20.5
여	11.0±4.1	29.0±10.5	10.0±4.3	55.0±18.8
경기	10.5±3.5	31.5±10.0	11.3±3.7+	59.4±17.1
남	9.9±3.4*	32.6±9.9	12.3±3.7***	60.9±16.6
여	10.8±3.5	30.9±10.0	10.7±3.6	58.6±17.3
기타	10.6±3.9	31.5±10.5	10.7±3.7	58.4±18.4
남	12.4±3.8***	35.1±9.5***	12.1±3.8***	67.7±16.8***
여	9.9±3.8	29.9±10.6	10.0±3.6	54.5±17.8

+ 지역간 유의성 존재(p < 0.05) *p < 0.05 *** p < 0.001

〈표 13〉 성 및 지역 따른 식행동 평가

변인		N(%)				비고
		불량군 (60점 미만)	양호군 (61-79점)	우수군 (80점 이상)	총계	
서울	남	47(52.2) ^a	30(33.3)	13(14.4)	90(100.0)	$\chi^2 = 19.93$
	여	62(61.4)	28(27.7)	11(10.9)	101(100.0)	
경기	남	40(46.0)	38(43.7)	9(10.3)	87(100.0)	$\chi^2 = 0.51$
	여	82(50.0)	64(39.0)	18(11.0)	164(100.0)	
기타***	남	18(30.0)	27(45.0)	15(25.0)	60(100.0)	$\chi^2 = 1.67$
	여	95(61.3)	47(30.3)	13(8.4)	155(100.0)	

***P < 0.001

학생이 35.7%, 불량한 학생이 52.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식태도가 불량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화영¹⁵⁾의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에서 식습관 점수의 가능한 10점 중 3.93으로 아주 나쁜 편인 학생이 59%에 해당된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타 지역 대학생에 대한 식행동 평가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불량군이 30.0%에 불과한 데에 반해 여대생은 두 배가 넘는 61.3%나 차지하였으며, 남학생들은 양호군과 우수군이 각각 45.0%와 25.0%로 여대생의 30.3%와 8.4%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p < 0.001$)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13).

2) 식가치관에 따른 편의식에 대한 이용 정도

〈표 14〉 식가치관에 따른 편의식 이용 점수

식가치관	a (M±SD)	
	편의식 이용 평균 점수	즉석식품 이용 점수
공복감 해소	38.7± 9.9 ^a	12.5±3.9
간단히 끝내기	41.1±12.7	13.0±4.3
영양 취하기	36.1±14.5*	11.6±5.0*
즐기기	41.1±11.5	13.4±4.3

*P < 0.05 (0점 →96점)

영양을 취하는 집단의 편의식 이용 점수가 36.1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것($P < 0.05$)으로 나타나 '영양을 취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집단의 편의식품의 이용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사를 할 때 '간단히 끝내는 것'과 '즐기기'에 가치를 두는 집단은 편의식품에 대한 이용 점수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다(표 14).

3) 식행동과 편의식에 대한 이용 현황과의 관련성

전체적으로 식행동을 분석한 결과(표 15), 식행동 점수가 낮을수록 편의식을 자주 이용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01$). 또한 식행동 점수와 각 편의식품의 이용 정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냉동식품, 즉석식품, 편의점용 편의식품의 경우에 식태도 점수와 음의 상관성을 보여 식행동이 나쁠수록 이들 식품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즉석식품 이용 정도만이 유의적인 차이($P < 0.01$)를 보였다(표 16).

IV. 결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전국 7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의 편의식(크게 냉동 식품, 냉장 식품, 즉석식품, 통조림 식품,

〈표 15〉 식행동과 편의식품의 이용 정도의 관련성

식행동	a N(%)				비고
	이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	자주 이용	총계	
불량***	24(47.1) ^a	228(48.0)	78(66.7)	330(51.3)	$\chi^2 = 14.79$
양호	18(35.3)	184(38.7)	31(26.5)	233(36.2)	
우수	9(17.7)	63(13.3)	8(6.8)	80(12.4)	
전체	51(100.0)	475(100.0)	117(100.0)	643(100.0)	

*** p<0.001

〈표 16〉 식행동 점수와 편의식품 이용 정도와의 상관성

편의식품의 이용 정도	식행동 점수
냉동식품	-0.0641
즉석식품	-0.1041**
냉장식품	0.0103
통조림식품	0.0552
조리된 반찬	0.0328
편의점 식품	-0.0576
전반적인 편의식품	-0.0717

** p<0.01

조리된 반찬, 편의점 식품 6종류)에 대한 인지도, 이용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전반적인 식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는 서울 지역 대학생이 타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36.7%) 것으로 나왔으며(p<0.01) 생활 유형에 따른 인지도는 현실 향유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편의식을 알고 있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2. 전반적인 편의식품 이용 현황은 자주 이용(18.2%), 가끔 이용(73.9%), 이용하지 않는다(7.9%)로 나타났으나 지역 및 성별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개별적으로 편의식품의 이용 정도를 비교한 결과, 라면류의 이용 정도가 가장 높았고 냉동 볶음밥과 포장밥은 그 이용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들이 밥류를 편의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6가지 편의식품별로 그 이용 정도를 비교시 편의점에서의 이용도가 가장 높아 편의식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 많이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주로 냉동 식품, 레토르트 식품, 그리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을 많이 소비하고 있었으며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비자택 집단에 비하여 냉장식품을 많이 섭취하였고 비자택 학생 중 자취생의 편의식품 이용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자택 이외에서 생활하는 여대생 중 자취생과 기숙사생들의 편의식품 이용도가 높았으며 이들은 주로 냉장식품과 통조림식품을 소비한 반면 자취하는 여대생들은 편의점 김밥과 사발면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편의식의 인지도에 따른 이용 경험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0.001), 편의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 가끔 이용하는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식을 알고 있으면서 자주 이용하는 비율은 42.0%, 편의식을 모르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로 나타나 편의식에 대한 인지도가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식행동이 불량한 집단의 경우 편의식품을 자주 이용하는 비율(23.6%)이 가장 높았으며(p<0.001), 식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냉동식품(상관 계수=0.0641)과 즉석 식품(상관 계수= 0.10414), 그리고 편의점 식품(상관 계수= 0.0576)을 많이 이용했으나 즉석식품에서만 유의적인 차이(p<0.01)가 나타났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 진흥재단의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비의 일부이며 연구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이기춘 · 이은영 · 이기영외 3인, 산업사회의 소비자 행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115-132, 1989.
2. 김기숙 · 한경선, 교양을 위한 음식과 식생활 문화, 대한 교과서.
3. 오세영, 생물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본 한국인의 식생활 행동: 지난 50여년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8(4):373-379, 1993.
4. 이영남 · 신민자 · 김복남, 전통음식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1): 71-80, 1991.
5. 이경은, 한국음식의 편의식 개발을 위한 주부들의 인식 조사 및 쿡첼시스템을 이용한 고등어조림 생산과정의 품질평가,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7.
6. 오은주, 일부 대학생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7.
7. 정영진, 대학생의 음식기호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7(1): 10-19, 1984.
8. Driskell, J.A., Keith, R.E., & Tangeny, C.C., Nutritional status of white college students in Virginia, J. Amer. Dietic. Assoc. 74:32, 1979.
9. 문수재 · 양일선 · 이민준, 산업문화의 형태에 따른 식생활 변화가 국민영양과 식문화에 미치는 국제적 비교연구, 한국 음식문화연구원논문집, p 191-235
10. 이기열, 한국인 식생활 100년(1880-1980)-식생활 현황의 평가와 추이에 관한 연구, 연세논문집 P309-316, 1985.
11. 임정빈 · 서병숙 · 이효지 · 장유경, 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양식, 대한가정학회지 28(3): 33-50, 1990.
12. Schorr, B.C., Sanjur, D., "Teen-age food habits", J. Am. Diet. Assoc., 61:415, 1972.

13. 음식과 식생활 문화, 1997
14. 김경훈 편저, 「한국인 트렌드」, 213-224, 실록 출판사, 1994.
15. 김화영,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7(3): 178-184, 1984.
16. 이기열 · 이양자 · 김숙영 · 박계숙, 대학생의 영양실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3(2): 73-80, 1980.
17. 정영진, 대학생의 음식기호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7(1): 10-19, 1984.
18. 구난숙,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0(4): 357-366, 1995.
19. 김정현, 한국인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p 13, 1990.
20. 이영순 · 임나영 · 박광희,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식문화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9(4): 369-378, 1994.
21. 野邊收, “消費者 行動 調査 解説,” No. 6, 日經廣告 研究所, 所報 1971.
22. 한국영양자료집 p 90, 신광출판사
23. 모수미, 한국 외식문화의 발달과정, 한국식문화학회지 9(2): 181-188, 1994.
24. 광동경 · 이경애 · 류은순, 조리냉동 및 냉장식품에 대한 도시주부의 이용실태 및 인식정도와 식품제조업체의 의식구조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9(3):50-58, 1993.
25. 조우균 · 이종미, 소득 수준에 따른 서울시 국민학생들의 가공 · 편의식품류의 선택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7(2): 51-74, 1991.
26. 김미향 · 한재숙 · 이효수, 도시 주부의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6(3): 69-78, 1988
27. 안숙자, 한국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조리과학회지 5(2): 75-90, 1989.
28. 한진숙 · 신미경, 조리식품의 기호에 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3(1): 57-66, 1988.
29. 최춘언, 현대산업사회와 식생활 문화, 한국식문화학회지 6:71-91, 1991.
30. 모수미, 외식산업의 발달이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120, 1986.
31. Stasch, Ann., Johnson, M.M., and Spangler, G.J., Food practices and preferences of some college students, J. Am. Dietet. Ass, 57:523-527, Dec. 1970.
32. 이영미, 도시 청소년의 식행동과 식품에 대한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논문, 1986.
33. Nichott, A., Changing food habits, J. Nutr. Educ. 1:10, 1969.
3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 8-22, 1996.